지난 3월 22일 뉴진스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 행사장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 간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둔 지난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했다.강 변호사는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계약 분쟁, 출연료 분쟁 소송 등을 전문으로 맡아왔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고문변호사로서 연습생들에게 전속계약 관련 강의 등도 해왔다.이에 일각에서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뉴진스 부모들과 함께 하이브와 전속계약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관련해 강 변호사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전혀 아니다, 내가 위임받은 업무는 탄원서 제출 뿐"이라고 뉴스1에 답했다.하지만 탄원서를 낼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고 민 대표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서도 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다. 특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소송 대리인'이라고 명기하기도 했다.뉴진스 멤버들의 부모가 제출한 탄원서는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이번 가처분 심리 당일 제출한 탄원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평소 민 대표가 '뉴진스 맘'으로 불렸고, 멤버들과 이들의 부모가 민 대표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해온 만큼 민 대표 측에 힘을 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이브는 멤버들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자신들의 소중한 아티스트라며 내달 도쿄돔 팬 미팅까지 차질 없이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민 대표 해임건이 안건이다.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의 결론은 임총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하이브는 민 대표를 바로 해임하는 게 불가능하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